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신지서 강해
-호세아-

죽음의 죽음

(호세아 14장 1 - 9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목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의 죽음이란 중생하지 못한 자가 당하는 멸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호 13:14).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썩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4-55).

사망을 인격체로 말합니다. 사망의 목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으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은 회개를 재촉합니다.

1.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1절).

회개는 불의를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까지 되어야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2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와 같은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잇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3절).

회개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굉장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했으나 그것은 이름뿐이었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는 추호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적인 죄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4장에서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죄로 보는 것이 회개의 기초입니다. 불의를 불의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시작됩니다. 회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 것을 알고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2. 하나님의 외복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4절).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십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에게 받는 사랑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억지로 사랑했다면 호세아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멜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고멜이 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비는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5절).

이슬은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슬은 사람들이 자는 밤에 고요히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슬같이 내리십니다. 또 이슬은 한 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계속적으로 내립니다.

꽃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백합화 같이 활짝 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3.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 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9절).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므로 양심을 억압하고 그 일로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정직한 도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례자는 문선교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금주부터 1면에 말씀을 씁니다.

서울 강남노회 신년 신앙 수련회

내일 13일(월) 오후 1시 본당에서

우리교회가 속한 서울 강남노회 제10회 신년 신앙수련회가 우리교회 본당에서 내일-13일(월) 오후 1시에 개최된다.

강사로는 명성교회에서 시무하시는 김삼환 목사이다. 많은 성도들이 신년 신앙수련회에 참석하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한다.

서울교회 주요 교구업무의 처리 방법

우리교회는 현재 매주일 많은 새가족이 등록하고 이에 따라 교인의 수가 급증함으로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주요 교구업무를 모르고 있어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우리교회 주요 교구 업무를 새가족 등록, 장례식, 결혼식, 이사 등 4개로 세분하여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였다. 모든 성도들은 아래의 흐름도를 숙지하여 교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새신자등록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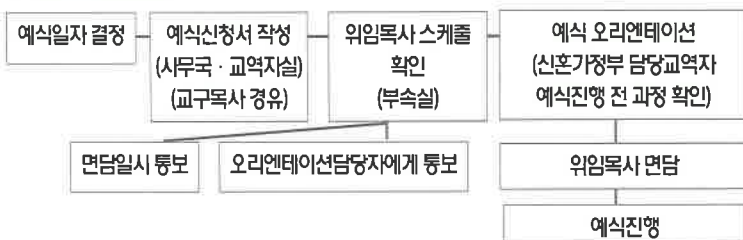


† 장례식 흐름도 †



- 장례 기준: 등록교인, 고인 또는 직계손 중심, 기타 필요시
- 위로예배: 부목사 1일 2회
- 입관예배: 담당교구 목사
- 천국환송예배: 위임목사 인도, 갈렙찬양대 동원, 가급적 새벽7시에 시간을 맞춘다. 예배순서지 만든다. 본인이 본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 경우 가족 요청이 있을 시 교구 목사가 집례한다. 단 불신자일 경우 찬양대 동원은 하지 않는다.
- 하관예배: 담당교구 목사

† 결혼식 흐름도 †



- 예식장소는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을 원칙으로 한다.
- 토요일 예식은 1회에 한하여 위임목사가 주례한다.
- 위임목사는 예배당 외에서의 주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식사진, 음식, 꽃장식 등은 교회지정 방식을 권장한다.
- 화환은 사절하고 폐백은 허락하지 않는다.

† 이사등록 흐름도 †



청지기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오늘로 2003년 각 모퉁이에서 교회를 섬기게 될 청지기들의 수련회가 끝난다. 이에 따라 오늘 찬양예배는 일주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교육 받은 모든 청지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년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청지기 헌신예배로 드리게 된다.

교회로부터 소임을 받은 모든 청지기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함께 찬양드리며 헌신을 결단하고 청지기 본인들이 속한 각 부서가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함께 기도한다.

2003년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 신혼가정부를 시작으로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중등부	2월23일~25일	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종윤·윤영국
고등부	1월27일~29일	신림연수원	대니엘이 되자	이종윤·오정식
대학부	2월10일~12일	승동기도원	생명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학부	이종윤·장재환
청년부	2월14일~15일	추후결정	삶의 주인이 되신 성령님	이종윤·이태훈
신혼가정부	1월17일~18일	벤앨하우스	성령이여 우리가 영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이규정

신혼가정부 특강 헤어 액세서리 만들기

신혼가정부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702호에서 '헤어 액세서리(종이) 만들기'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이신애 집사며 유아부 유치부에 다니는 자녀들의 어머니들은 모두 환영 한다.

함께 모여 교제도 나누며 좋은 기술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며 공작용 가위만 준비하면 된다.

포이동 화재 이재민 구호 1월8일(수) 구제위원회에서

포이동 197번지 60가구가 사는 체비지 지역에서 지난 2002년 11월 28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중 11가구가 완전히 전소되어 이재민 28명이 발생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구제위원회가 먼저 1월 3일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처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회는 즉시 구제위원회를 파견하여 1월 8일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불과 옷가지와 위로금을 개포 4동장과 함께 이재민에게 전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였다.



금주의 성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NIV John 14:6)

2003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새롭게 태어나는 '구제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정병무 장로(구제위원장)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섭리의 한 모퉁이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해의 안식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 또 감사 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중의 지난 일년이 또 한번 자신을 소스라치게 합니다. 무익한 종이었고 하나님 목회에 조력자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투성이라는 것을 돌아보며 웃음을 머미어 봅니다.

이제 밝아오는 2003년 새아침에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목포 세 기동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실현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선도적인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교회 되기를 바라며 달려가겠습니다. 구제부는 새로운 계획으로 정기구제와 절기구제, 수시구제 등 다각적인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사부는 교회 전반적인 부족한 손길을 메워가면서 은혜 충만한 우리교회에 물주는 자로 다가갈 것이며, 경주부는 교우의 기쁨과 슬픔에 같이하며 어디든지 달려가는 소임을 감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경주부의 동반자로 우리 "갈렙 찬양대"는 사백을 깨우며 천국 환송예배 찬양을 위하여 기도도 준비하여 찬양으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의 동역자로 다듬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거시적인 목회방침에 합한 우리 구제위원회도 거듭 태어나도록 많은 기도와 교우님들의 협력을 감히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순례자신년 테마기획 (1)

박옥수는 이단이다!

오정식 목사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군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벧후 3:17)

잊어버릴 만 하면 서울 시내 곳곳에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라는 현수막이 내 걸린다. 심지어는 공중과 방송에 광고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구원과 계열에 속한 이단이다. 구원과는 크게 권신찬 계열(기독교복음침례회), 이요한 계열(본명 이복칠, 대한예수교침례회), 박옥수 계열(대한예수교침례회) 등 3개 파로 분류할 수 있다. 본류는 권신찬 계열이고, 이요한 계열은 여기서 분파 되었다. 박옥수씨와 권신찬씨는 '딕 옥(Dick York-미국인 독립선교사)'이라는 사람에게 같은 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박옥수는 중학교 3학년 중퇴생으로서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며 딕 옥이라는 자와 권신찬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1962년 10월 7일 '거듭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때 대구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대전 소재 한밭중앙교회를 본거지로 삼고 있다.

1. 문제점

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

'깨달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면서 그 구원받은 시각(영적생일)을 알아야 한다고 하며, 육적생일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영적생일을 기억해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육적생일은 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적생일도 타인이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다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깨달음은 믿음에서 오는 것으로 깨달음 자체가 믿음의 전부가 될 수 없는데, 저들은 구원에 대한 피동적 깨달음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영지주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나.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회개란 '돌이킨다'는 말로써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한번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필요가 없고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으므로 회개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이

므로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죄인이나 의인이냐'를 물어서 죄인이라고 하면 천국은 의인만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니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저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해야만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며,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바울도 죄에 대하여는 과거 시제로 고백하고(딤후 1:13) 죄인의 피수뉘에 대하여는 현재 시제로 고백했던 점(딤후 1:15) 구원과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다.

라. **통교회의 제도와 예배형식, 주일성수, 십일조, 사백기도, 축도 등을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예컨대 권신찬의 경우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면서 종교는 죽은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기성교회도 종교요 자신들만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권신찬, 종교에서의 해방, pp.1~3) 그 한 가지 예이다.

2. 결론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깨달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들의 주장은 영지주의적 사고임에 틀림이 없으며,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롬 9:16)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에 간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명백한 이단으로 사료된다(총회 사이비이단종교자료 요약정리). 그리하여 이들은 제 77회 총회(1992년)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때에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순결 서약식을 마치고...

홍지혜 (중등부)

"지혜야 너 혹시 순결 서약식 할 생각 있니?"
"순결 서약식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 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글쎄 생각 좀 해 볼게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킨다고? 쉬운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싶다. 엄마와의 대화 중에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순결 서약식을 한다고 했다.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의 말씀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덜컥 겁부터 났다.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많이 했다.

그리고 1월1일 순결 서약식 교육을 받는 날이 찾아왔다. 구성에 이쯤마의 세상적인 성교육보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내 두렵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었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었다.

드디어 순결서약식이 있던 날! 5시 찬양예배가 시작됐다. 목사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너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순



결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을 칭찬해 주셨다. 나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목사님께서 내 반지를 끼워 주시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예배가 끝나고 순결서약증서를 받은 후 교회에서 나왔다.

지금 나는 순결 서약식을 한 뒤와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내가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나의 의지와 바로 더 깊어진 신앙심이다. 처음에 내가 순결 서약식을 한다고 했을 때만해도 아무런 생각 없이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더 내 몸가짐에도 조심하고 모범을 보이고 애쓰고 내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필코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순결서약을 지키기 위해 성결한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다.

엄마가 딸에게

순결 서약식을 마친 사랑하는 딸 지혜야!

유명의 성도 (13교구)

저 들관에 편 뱀함 같이 자라날 딸에게 지혜야, 네가 어느덧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 서약식을 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예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냥 어리개만 느껴지는 네가 순결이 무엇인지 이해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가르쳐 줘야 했구나. 너는 내 말을 잘 이해했고 그리고 결심을 하는 것 같았다.

너의 순결 서약식을 지켜보며 무척이나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었다.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너무 타락해서 사람들은 죄의 무서움을 잊어버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지의 세대가 되어서였다. 늘 기도 중에 세상의 문화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를 리드 하는 힘 있는 자가 되도록 간절히 간구했다.

사랑하는 내 딸 지혜야,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또한 축하기를 한다. 오늘 서약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축하기를 보내며 서약식을 통해 더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거라.

2003년 청지기 수련회

바람직한 교회학교 교사

교구일꾼의 역할

1. 먼저 알고, 지속적으로 공부에 나가는 교사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가르칠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사는 누구인가?, 학생이란 누구인가?, 교수-학습지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부르심과 응답' 공과란 무엇인가?, 반목회란 무엇인가? 그밖에도 만남과 대화의 실제, 예배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이해와 훈련 등에 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도전들에 부딪히게 되고,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빠른 변화가 지속된다고 할 때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낳는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움 없이는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명감을 갖고 교육하는 교사

교회학교 교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교사의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교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공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일과 교사로서 맡은 반 학생들을 돌보고,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부서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행사 등에서 어떤 순서나 역할을 맡았을 때 책임있게 수행하는 일, 부서의 행정업무를 맡았을 경우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여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책임지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바램만으로는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많이 기도하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3. 먼저 본을 보이는 교사

바른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가르쳤고, 가르쳐야 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두가지를 일치시켜 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락방의 개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체이다. 생명체를 유지하는 최소단위는 세포로 다락방은 세포와 같다.

-다락방 모임의 목적

- 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 ② 기도하기 위해
- ③ 성도의 교제를 위해
- ④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락방장이 살필 일

- ① 다락방 식구가 공예배에 출석하고 있는가?
- ②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는가?
- ③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는 없는가?
- ④ 이단 사설에 미혹된 자는 없는가?
- ⑤ 실망하고 낙담한 이는 없는가?
- ⑥ 사업의 실패로 실의에 빠진 가정은 없는가?
- ⑦ 가정불화는 없는가?

-다락방장이 갖추어야 할 소양

- ① 심방자 자신의 곤란한 입장이나 사정을 이야기 하지 말 것.
- ② 어른을 존경하고 어린이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한다.
- ③ 심방 시 물건을 소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 ④ 애경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하며 말에 덕이 있어야 한다.
- ⑥ 화목형이어야 하며 교회 봉사에 열심이어야 한다.
- ⑦ 목회자(관리자), 장로(기동, 주춧돌, 곧아야 함, 힘이 있음), 권사(울타리), 집사(벽돌)의 심정으로 섬긴다.

-다락방 일꾼 10가지 수칙

- ①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에 최고의 관심을 갖는다.
- ②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 ③ 교역자의 목회방침에 따른다.
- ④ 종의 자세로 섬긴다.
- ⑤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 ⑥ 영적 생활의 본이 된다.
- ⑦ 내 가정에 충실한다.
- ⑧ 위로자와 상담자가 된다.
- ⑨ 덕스러운 말을 한다.
- ⑩ 다락방 식구들과의 금전 거래를 삼간다.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다짐하며



서경악 집사(1-4다락방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정초지만 새벽잠을 깨고 청지기로서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각오로 참석하기 시작한 2003년도 청지기 수련회는 오늘로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9월 40여 년 간 몸담았던 교회에서 온 가족이 서울교회로 이적을 해서 등록한 저에게는 새가족부 교육을 이수하고 송구영신예배와 신년감사예배에 이어 새로 임명받은 청지기들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와 수련회는 새로운 감각과 청지기로서의 결단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40여 년 동안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많은 봉사를 했으나 이처럼 연초에 교회에서 청기기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와 분야별로 청지기수련회를 통한 신앙훈련을 받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순종', '겸손'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을 닮은 청지기로서의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실시된 청지기수련회의 분야별 강의를 통하여 서울교회의 여러 부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청지기로서 분야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걸으며 느끼고 보아왔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이 이러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찬양대와 베들레헴찬양대의 대원으로, 1교구 4다락방장으로, 직장에서는 신우회 회장으로, 서의 중책을 맡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교회단신 ■

- † 70인전도대 발대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 어린이 수요일예배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102호에서 계속되며 2부 순서로 예능교육을 갖는다.
- † 초등부에서는 오늘부터 어린이 가정학습지를 발행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8일(토)강남노회 남선교 연합회 총회에서 설교한다.
- 금주의 식사: 강석우집사·니연신집사 가정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새해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 2. 청지기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대로 좋은 열매 맺도록
-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 4. 북한의 핵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